

# 축산업계 소식

## 축산발전을 위한 심포지움 개최

— 축산 당면문제를 분석,  
향후 발전방향 제시위해 —



농수축산신보(대표 한남석) 주최 제 2회 「축산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움」이 한국축산학회(회장 김동암) 주관으로 국회 민병초위원, 농수산부 송찬원국장, 축협중앙회 이득룡회장, 각 축산업계 관련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0일 전경련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농수산부와 축협중앙회가 후원하고 한국낙농경영연구회가 협찬한 이날 심포지움에서 농수축산신보 한남석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심포지움이 우리 축산업이 어디를 향해 어떻게 나갈 것인지를 진단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한국축산학회 김동암회장

은 「축산업은 60년대 이후 급성장하여 오늘날에는 국가 중요사업으로 성장했는데 아직도 시행착오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또 송찬원국장이 대신한 박중문 농수산부장관 격려사에서는 「축산은 농가소득 증대와 국내 부존자원 개발을 위해 계속되어야 할 분야이며, 정부는 축산물 가격안정, 유통구조 개선 등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움에는 한인규(서울대)교수 등 7명의 연사가 발표에 나섰으며, 저녁에 베풀어진 연회에서는 발표자와 참석자간에 자유스럽게 질의응답이 오갔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 축산업의 전망과 발전방향  
한인규교수(서울대)
- 육류 유통구조의 개선방향  
권 원달교수(충북대)
- 한국 낙농산업의 나아갈 길  
강 성원조합장(서울우유조합)
- 소 도입에 따른 당면성과 대책  
박 신호박사(한국종축개발협회)
- 산지 초지의 향후 개발방향  
김 동암교수(서울대)
- 축협발전을 위한 축협운동의 과제  
이신 곤부장(축협중앙회)
- 돼지 고기 가격을 위한 계열화 생산체제  
윤희 진상무(선진축산)

## 경북 15개 시설촌 정축연합회 구성 -공동구매사업 생산자재 싼값에 구매-



(김육지 회장)

경북지역의 시설촌 15개 조합이 한데 뭉쳐합심으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모임인 정축연합회(회장 김육지, 영천농장 조합장)가 지난 8월말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소재 사무실에서 문을 열었다.

동 연합회에서는 사료, 약품, 기계, 기구 등의 공동구매사업과 조합형식으로 생산된 양계산물을 공동출하해 싼값에 생산자재를 구입함과 동시에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양계산물을 공급할 예정인데 현재는 생산자재에 대한 공동구매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다.

경상북도내에는 칠곡, 월성, 영일, 영천, 상주, 성주, 달성군 등에 2천세대 15개 시설촌 조합이 있는데 이들 조합이 작년 9월 부터 준비를 시작, 이번엔 규모별, 능력별로 출원금을 각출, 약 700여만원을 모아 사무실을 개설케 된 것이다.

정축연합회의 현재 사육규모는 산란계 약 50여만수이다.

주소: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동 390-4  
전화: (754)6180

## 농촌지역 종합개발 심포지움 개최 - 농촌개발의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김영진)은 지난 9월 14일 농수산부 후원으로 「농촌지역 종합개

발 심포지움」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박종문 농수산부장관, 국회 오한구 의원, 학계, 언론계, 관련 기관단체 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3개분과로 나누어 주제논문을 발표하고 각 주제별로 토론한후 종합토의를 벌이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산업사회에 부응하여 복지농촌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는 농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의 정책수립 방향을 제시코자 마련된 이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토개발에 있어서 농촌개발의 의의  
류우익(서울대 사회대 교수)
- 농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의 기본구상  
김동균(농수산부 기획예산담당관)
- 농촌지역 종합개발정책의 과제와 전략  
최양부(농경원 연구위원)

## 농산물유통 개선 심포지움

- 9월 19일, 20일 농협중앙회 주최로 -

「농산물유통 개선 심포지움」이 농협중앙회(회장 윤근환) 주최로 학계, 연구기관, 유통인, 농민대표 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월 19, 20일 양일간 농협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산지와 소비자간의 가격차를 줄이고 유통체제를 개선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는 물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움에서는 윤희직교수(건국대)의 「유통육류 개선 방안」등 10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발표가 모두 끝난 후 당면과제로 설정된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자와 참석자간에 열띤 토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 중공, 미곡물수입 가능성

미국농무성은 장기적으로 볼 때 중공의 사료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추진으로 미국곡물의 수입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공정부는 배합사료산 증대계획의 일환으로 1983년에 7백만톤이었던 사료생산량을 1999년까지 5천만톤으로 확대시키기 위하여 향후 3년 동안에 300개의 공장이 증설되면 국내에서 생산된 곡물로는 원료가 부족하게 되어 수입산으로 보충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3년간 계속된 풍작에도 불구하고 산물생산이 축산부문의 수요증대를 따라가지 못했다. 중공이 금년에는 미국의 사료산물을 수입하지 않았으나 1982/83년에는 220만톤이나 수입하였었다.

금년에는 국내 수송문제와 저장시설의 부족 때문에 수입이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대만, 옥수수 안정가격 인하

세 계시장의 옥수수가격이 안정세를보임에 따라 대만정부는 지난 8월 9일을 기해 수입옥수수의 안정가격을 톤당 160달러로 인하였다.

이에 따라 비육돈 후기사료의 가격은 톤당 270달러(216,000원), 육계후기는 340달러(272,000원) 그리고 산란계사료는 톤당 290달러(232,000원)로 조정되었다.

## '84 전국도서시장 열려

— 10월 15일부터 여의도 특별전시장에서 —

한국방송공사는 국민 독서의식의 고취와 독서환경의 조성으로 출판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키 위해 '84 전국도서시장을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여의도 특별전시장에서 열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설치된 특별기획관에는 전국 각지의 잡지, 사보, 학회지, 학술지 등을 총망라하여 전시되고 있는데, 본지도 이 행사에 참가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방송사업단이 후원하고 문공부와 한국출판협동조합에서 후원하고 있다.

## 축협, 안동 배합사료공장 착공

— 수원축협 사료공장 완공 —

축협중앙회(회장 이득룡)는 지난 9월 19일 경북 안동군 남서면 현지에서 안동 배합사료공장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이날 기공식에는 안동지역 양축농민 200여명과 이 지역 출신 권정달국회의원, 류종탁농수산부차관보, 지역기관장 등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득룡 축협중앙회장은 식사를 통해 「지역축산 발전과 양축가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축협중앙회 사료공장이 없는 경북지역에 현대식 시설을 갖춘 배합사료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말하고, 「앞으로 양질의 배합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사료곡물의 종류와 수입선의 다양화 등 원가상승요인을 극소화하여 사료가격 안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공장은 모두 60억원의 내외자를 투입, 33,916㎡의 부지위에 건평 8,364㎡의 규모로 1일 생산량 30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되며, 85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한편 8월 29일에는 수원축협 사료공장 준공식이 이득룡 축협중앙회장, 조합원 등 8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화성군 대안면 병점리 신축공장 현장에서 있었다.

지난해 8월 말에 착공된지 1년만에 완공된 사료공장은 3천여평의 대지 위에 건평 890평으로 1일 생산량 150톤 규모로 현대식 시설을 갖추고 있다.

## 가축糞 메탄가스 이용 시설지원

— 동자부, 3년내에 발효탱크10기 기증 —

동력자원부는 가축의 분뇨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축산 농가에 적극 지원키로 했다.

동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축의 분뇨에서 60~70% 순도의 메탄가스를 채취하여 축사난방,

농작물건조 등 농촌 에너지원으로 이용토록 적극 권장,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축분을 연료로 이용하기 위한 시설(10m<sup>2</sup> 기준)을 갖추는 데에는 발효탱크(150만원)와 설치비용을 합쳐 2백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데, 동자부는 올해안에 소 20두, 돼지 50두, 닭 1천수 이상 사육농가중에서 10가구를 선정하여 발효탱크 10기를 무료로 기증할 예정이다.

### 식품위생 관리업무 준비작업 착수

#### — 식품위생국 신설 관련규정개정작업 —

이미 본지를 통해 보도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농수산부에서 관장해 오던 유·육가공, 수산물 가공의 인허가 업무가 보사부로 이관됨에 따라, 보사부는 식품위생국을 신설하여 관련 규정 개정작업을 서두르는 등 식품위생관리업무 준비에 한창이다.

이는 86·88의 큰 국제적 행사를 앞두고 축산물의 품질을 위생문제에 있어서도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식품위생법은 획일화되어 있어 각종 축산물의 특성에 일일이 맞추기 어려운 점이 많았던 것이 사실임에 이번 관련규정 개정작업에 대한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 소련, 올해 곡물수입

#### 4천3백만톤 예상

#### — 지난 2년간보다 1천만톤 증가 —

USDA에 의하면 금년 7월 1일부터 시작되어 내년 6월 말로 끝나는 1984/85년도 소련의 곡물수입이 지난 두해동안의 연평균 수입량 3,300만톤 보다 1,000만톤이나 많은 4,300여만톤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를 곡종별로 보면 1984/85년도 소맥수입량은 사상최대였던 지난해의 2,050만톤보다 350만톤이 많은 2,400만톤에 이를 것이며, 사료곡

물의 경우도 지난해보다 750만톤이 늘어난 1,0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미곡, 두유 및 기타곡류의 수입량은 100만톤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소련의 곡물수입량이 이와같이 늘어나게 된 것은 지난 1979년부터 곡물생산이 계속해서 목표에 이르지 못한 데다가 1984년도 작황이 좋지 않은데 비해 가축사육두수의 증대로 사료곡물의 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해 주듯이 소련은 이미 1984/85년도에 반적될 2,000여만톤의 곡물을 구매했는데 이 중 900여만톤은 미국산이다. 소련이 연초에 이와 같이 많은 양의 곡물을 구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미국정부는 지난 8월 24일 소련이 미·소 장기 곡물거래협정에 나타난 상한이상의 미국산 곡물을 수입하기를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협의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 미도축업계 집중화현상 두드러져

#### — 도축회사수는 계속 감소 —

최근들어 미국내 육우도축전문회사의 수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소수의 대규모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따라 미하원중소기업위원회는 이들 소수의 대규모 도축장이 판매가격과 구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판매 구매과점 기업으로 변모하지 않을까 하는 관점에서 육우도축업계에 대한 조사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1982년 현재 미국내의 육우도축회사는 지난 1972년도의 710개사보다 34% 즉 239개사가 줄어든 471개사에 불과했다. 즉 과거 10년간의 이들 회사수 감소율은 연평균 3%이었으며 1979년 이후에는 연평균 감소율이 6%에 달하고 있다. 최대의 감소현상을 보인 것은 1980년과 1981년으로서 한해 동안에 무려 76개사가 문을 닫아 전년대비 14%의

감소율을 보이기도 했다.

이렇게 도축회사수가 감소함에 따라 남아있는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증대되었다. 즉 미국의 Packers & Stockyards Administration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개소의 대규모 회사가 1982년도 한해동안에 도축한 육우두수가 전체의 76%에 달했는데 이러한 시장점유율은 1972년의 60%에 비해 무려 16%나 늘어난 수준이다. 그리고 한해동안에 가장 큰 집중율의 증가를 보였던 해는 1980년과 1981년으로서 연간 5%나 늘어났다.

이들 20대사의 1982년도 1년동안의 도축수는 평균 972,000두에 이르렀으며 나머지 451개사의 경우는 평균 13,408두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들 20대사간에도 규모의 차가 심해 이중 8개사가 미국전체의 61%를 차지하여 이들의 도축규모는 나머지 12개사 평균 도축규모의 6배나 되었다. 또한 지난 10년동안 이들 8대사의 연평균 시장점유율증가는 2%였으며 1979년부터 4%에 달하고 있다.

한편 1982년도에 4대사가 도축한 육우두수는 전체의 45%로서 평균 도축수가 2,870,000두나 되어 8대사중 나머지 4개사의 평균규모보다 3배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들 4대사의 업체 점유율은 지난 10년간에 매년 3%씩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미하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10년동안 조사대상의 모든 육우도축전문회사들이 처리한 육우두수는 646,107두나 감소된 반면 4대사의 도축수는 무려 3,890,000두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또 지난 10년동안에 보여준 이들 4대사의 시장점유율 신장이 계속된다면 2000년대에는 이들 4개사만이 남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 전세계 곡물생산량, 작년보다 약간 많을듯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보고에 따르면 미국,

소련, 캐나다, 동부아프리카 지역에서 불순한 기후의 영향으로 1984년도 전세계 곡류생산량 예측은 다소 감소 수정하여 17억 5,600만톤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는 작년 생산량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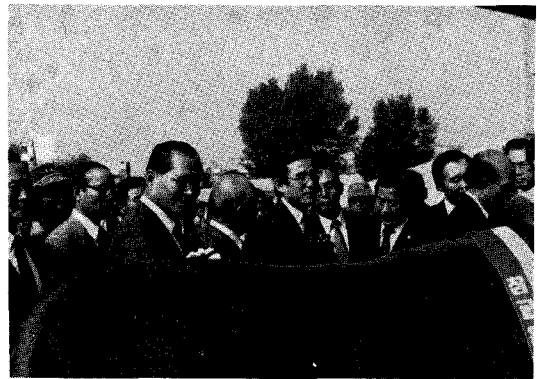
이 예측량은 지난 7월중에 예측하였던 것보다는 적은 양이나 작년 수준보다 1억 1,900만톤이 많은 양이다. 특히 금년 소련의 곡류생산현황은 1억 8,400만톤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작년보다도 600만톤이 감소된 양이다.

한편, 캐나다도 무덥고 건조한 기후 탓으로 약 600만톤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도 약 300만톤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동부 아프리카 지역은 매우 부진한 직황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케냐에서 옥수수 생산은 크게 줄어 작년의 절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 제10회 전국축산진흥대회 개최

— 10월16일 부터 수원에서—  
가축품평회, 축산전시관 운영



농수산부는 우량종축선발을 통해 가축자질향상 촉진과 양축농가에 축산업의 중요성을 고취시켜 축산업발전의 계기를 마련코자 오는 10월 16일(화)부터 18(목)일까지 3일간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381번지 소재 수원가축시장에서 제 10회 전국 축산진흥대회를 개최한다.

농수산부가 주최하고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주관 아래 축산관련협회 및 각업체가 협조하는 이번 축산진흥대회에는 축산물수급 안정을 위해 적정사육수 유도, 가격안정등이 큰 이유로 제기된다. 특히 배합사료, 단미사료, 우유, 육가공, 가축약품, 양봉제품, 모피가공, 축산기자재 등이 전시될 축산전시관은 전국 축산관련업체의 단합된 축산입국의 의지를 표현하여 국민들에게 축산업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것이다.

1982년 이후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축산진흥대회는 이번이 제10회 대회로 전국 우수 가축품평회, 축산진흥 포상, 축산물유통품 및 기자재 전시가 있을 예정이다.

전국 축산인의 큰 행사인 이번 진흥대회를 통해 축산업발전의 중요한 계기가 될것을 바라 마지 않는다.

### ■ 한국·대만·홍콩·일본 등 미농산물 최대시장 될 듯

미국 농무성은 한국, 대만, 홍콩, 일본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현회계년도 농산물의 최대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미농무성은 최근에 발행된 「세계농업현황 및 전망」(World Agriculture Outlook and Situation) 보고서를 통하여 이 지역에서의 농산물수입액은 109억 달러에 달하는데 서구의 수입액은 97억 달러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동아시아에서는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온 데 비하여 농산물의 생산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나, EC는 공동농업정책의 시행으로 농산물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며 농산물의 수입은 대폭 감소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공동농업정책의 변경이 EC의 농산물생산량의 감소나 잉여분 감축에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다고 동보고서는 밝혔다.

### ■ EC의 곡물생산량증가로 사료원료시장에 영향

EC역내의 금년도 곡물생산량은 당초의 예측량 1억 3,216만톤을 초과한 1억 4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현재의 예측량도 1983년도 생산량 1억 2,301만톤보다는 7.4%나 증가된 양이어서 사료원료시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EC의 한 통계관은 연질소맥의 생산량을, 그동안 여러 관측기관에서 예측하였던 5,800~6,000만톤 범위중 최고 수준인, 5,978만톤으로 예측하였다.

그러나 상인과 일부 공무원들은 생육상태가 좋기 때문에 연질소맥 생산량이 6천만 톤을 넘을 것이며, 총곡물생산량도 1억 3,300만톤을 훨씬 초과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EC의 보리생산량은 작년보다 6.5% 증가된 3,870만톤으로 예상되며, 옥수수 생산량은 2.5% 증가한 1,940만톤, 기타 곡물은 5.2% 증가한 888만톤으로 예측된다.

수입곡물과 EC역내 생산 사료원료와의 경쟁은 유채와 해바라기씨의 생산 증가로 더욱 가열될 조짐이다. 유채와 해바라기씨는 작년보다 각각 23.5%와 18.5%가 증가하여 310만톤과 115만톤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 사헬지역, 농작물피해 심각

#### — 곡물생산 예년의 1/3에 불과 —

케이프 버드, 차드, 겐비아, 말리, 모리타니아, 니제, 세네갈 및 어퍼볼타 등의 국가들이 위치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헬(Sahel) 지역의 때늦고 부족한 강우량으로 심각할 정도의 피해가 농작물에 발생하였다. 3,330만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이들 8개국에서 총 곡물생산은 10%가 하락한 4억 9천만 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부 세네갈의 가뭄은 1972~73년의 가뭄보다 더 심각하여 금년도 곡물생산은 예년의 1/3에 불과한 53만7천톤에 그칠 것 같다. 특히 세네갈의 외환수입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땅콩생산은 절반으로 감소된 55만톤에 이르게 되었다. 캄비아의 곡물생산도 50%가 감소되어 4만8천톤에 그치고, 수출소득의 90%를 차지하

고 있는 땅콩도 반으로 감소되어 9만톤에 그치게 되었다.

## 기사정정

지난호 p 170 우성사료 <주> (대표 최영석)은 대표 전남수의 오식으로 이에 바로잡습니다.

## 제 15 회 전국 축산인 테니스 대회 개최

주최 : 전국 축산인 테니스회

일시 : 1984년 10월 21일 (일) 08:30~17:30

장소 : 농촌진흥청 가축위생 연구소 (경기도 안양시 소재)

개최목적 : 테니스를 통하여 축산인들의 상호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축산정보를 교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참가자격 : 축산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은 모두 참가자격이 있으며 축산과 관련이 있는 관공서 및 학계의 테니스 애호가들은 전부 이에 포함됨.

### 경기방법 및 참가요령

1) 경기 종목은 복식 경기로 함

2) 경기종별

가. 봉황배 : 축산업계의 원로 및 연장자

나. 금배 : 과거 이 대회(금배 및 은배)에서 우승, 준우승경력자 및 경기력이 우수한자

다. 은배 : 봉황배와 금배 이외의 모든 참가팀.

### 3) 참가신청

가. 대회에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10월 17일 (수요일)까지 참가신청서가 필착되도록 한국화이자(주) 농축부로 우송하거나 전화로 연락하기 바람.

나. 신청요령은 참가팀의 성명, 근무처, 직위, 연령을 필히 기입하되 축산업계 종사자이면 직장이 상이해도 무방함.

기타 : 1) 참가자 전원에게 참가 기념품, 상품, 중식 및 음료 등을 무료로 제공.

2) 참가선수 회비는 팀당 10,000원 (5,000원/인)이며 대회 당일 접수시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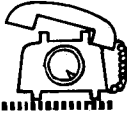
3) 대회 당일우천이면 1984년 10월 28일 (일)로 연기함

4) 한국화이자(주) 농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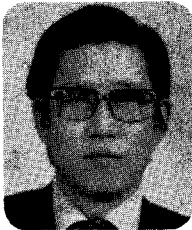
주소 :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1 (교보빌딩 8층)

전화 : 725-0391

## 업계단신



○오진양행 (대표 정진국) : 84국제무역박람회에 (SITRA 84) 화란의 STORK사 및 KOP-PENS사와 협력하여 국제관 4-16와 4-17호에 기계설치 및 직접가동과 비데오 상영 및 사진전시를 했으며, 현지기술자가 직접 내한하여 기술상담도 하여 준 바 있다.



(정진국 사장)

○광주계우회 : 경기도 광주지역 채란업자들의 모임인 계우회(대표 전광석)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이전장소는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엽이리 27-63, 전화는 광주 2-2014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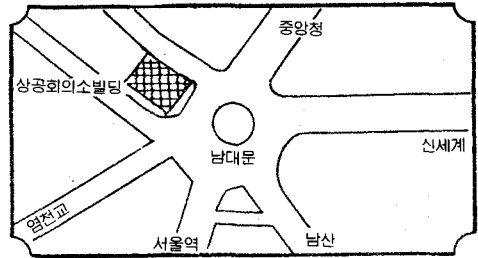
○고창양계 (대표 신흥중) : 지난 10월 1일자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하였다.

주 소 : 서울 강남구 서초동 1077-21호  
전 화 : 583-2550, 7076.

○〈주〉한일사료 : 사료업계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일사료는 지난 9월초 회장에 차두홍씨가, 사장에 최병덕씨가 취임했다.

○대주사료〈주〉(대표 정은섭) :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9월24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 소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번지  
(서울 상공회의소빌딩 9층)  
전 화 : 대표전화 778-4251, 756-4251  
영업부 778-4251~3, 778-4254~5  
각부서 778-4253~4, 756-4251~6



○동서농산〈주〉(대표 장세호) : 지난 7월 1차(14, 15일), 2차(28, 29일 양일간)에 걸쳐 영업사원 자질향상을 위한 판매기법 및 마케팅에 관한 교육을 실시.

이어 3차교육을 지난 8월25,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전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고 동서인의 긍지를 새롭게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우성사료(대표 전남수) :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난 9월13일자로 서울사무소를 이전했다.

주 소 : 강서구 신정동 812  
전 화 : 685-7774~6

○부국사료〈주〉(대표 한호섭) :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생산의 원활을 위하여 지난 9월 1일부로 임직원을 채용했다.

업무이사 허대범(전 현대사료)  
영업관리 주임 단영기(전 해표사료)  
경리주임 김병국(전 보건사료)

○이태일(과학축산 대표) : 이태일사장은 일본, 대만의 동물약품업체 시찰 및 업무협의차 8월16일 출국하여 24일 귀국하였다.

한편 사세확장과 영업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지난 9월 1일부로 부산, 경남지역소장에 이상목(전 일성신약)씨를 특채하여 앞으로 부산, 경남지역 축산업계에 우수한 약품과 양축상담을 기하게 되었다.

○김포가축약품(대표 박찬용) : 김포지역의 양축상담과 우수 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김포가축약품(바이엘 대리점) 전화번호가 지난 9월20일자로 2-5973으로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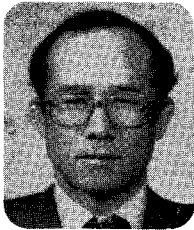
○**안양지구 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심정구)**: 지난 9 월초에 사무실을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주 소: 안양시 호계 2 동 847-11호

전 화: 43-3841~5

○**대보동물(대표 최중묵)**: 시세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 9 월13일부로 대구 소장(경남북 주재)에 장기운(전 동경축산)씨를 특채하였다.

○**신정재(과학사료 대표)**: 지난 9 월 7 일 부터 16일까지 미국 축산관련 업체시찰하고 귀국하였다.



(신정재 사장)

○**진양사료(주)(대표 강성배)**: 지난 9 월23일 0 시를 기하여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전 화: (0541) 2-3221~5

한편 영업부에 이철규(영남대 축산과졸)씨를 특채하였다.

○**제일제당(주)(대표 이종규)**: 미사료 곡물협회 회원 14명이 내한하여 8 월17일 인천 제 2 공장을 방문하여 회사 소개와 대두, 사료공장과 하역시설을 둘러 보았다.

○**홍성농원(대표 정상태)**: 벨지움 피터사 임 회사로부터 「피터사임 576부화기(55,000개 입란 능력)」를 도입, 가동중이다.

이 기종의 특징은 입란 이란 및 최종적으로 발생한 병아리를 꺼내는 작업되는 자동화기기와 내장된 마이크로컴퓨터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입력시키는 조작만으로도 온도, 습도, 환기, 과온시에 에어쿨링장치 전란 등이 발육발생 전과정을 통하여 완전히 자동조절되며 부화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기억되어 프린팅

되며 과온, 저온, 고습, 저습, 전란, 환기, 기계적결함, 전기적결함 이상시 경보신호를 발하며 부화기의 작동상태가 디지털로 조절기면에 나타나며 지연후 자동 작동지시를 넣을시 원하는 시간에 기계 스스로 가동되는 컴퓨터 시스템의 올인 올 아웃식부화기라고 한다.

앞으로 자동검란 이란기와 자외선 검란기도 도입하여 생산작업 효율을 높이고 있다.

○**한일농원(대표 차두홍)**: 작년말부터 홍콩에 육용계를 수출하고 있는 동사는 지난 9 월 25일 또다시 아바에이커 육용계 PS(중계) 3,400 수(♀3,000수, ♂400수)를 홍콩에 수출했다.

이번 수출은 해외진출의 폭을 넓히기 위한 동사방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 동사에서는 홍콩 현지로부터 주문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동방(대표 이각모)**: 업무확장과 영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화를 증설했다. 또 각 영업소 전화가 지난 9 월17일에 일자로 변경되었다.

본사 및 공장: 경기도 화성군 태안면 신리 365-4

수원 (0331) 33-2592~4

서울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496-1 244-1541~3, 246-4345~7

경북영업소: 대구시 서구 중리 주공아파트 25 동 208 호

대구 (053) 552-4347 이상익 소장

호남영업소: 광주시 북구 운암동 운암아파트 12동 401 호

광주 (062) 524-0617 박춘욱 소장

충청영업소: 충남 천안시 구성동 55

천안 (0417) 3-5868 이병모 소장

경남영업소: 부산시 동래구 남산동 48-13

부산 (051) 512-2149 조일호 소장

한편 동사는 9 월 1 일부로 영업부 경남지역 소장에 조일호씨(전 천호부화장)를, 기획부에 김남수씨(서울대 수의대졸)를 채용했다.

○과학사료(대표 신정재) : 지난 9월20일 가축약품 전국 판매점 세미나를 엘랑코 한국지사의 후원으로 엠버서더 호텔에서 경기도 근교의 판매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세미나는 제품소개와 함께 판매원의 기본자세 담당지역에서 문제되는 질병퇴치등의 내용으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동사는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앞으로 전국 일원에 걸쳐 이와 같은 지역특성에 맞는 소규모 세미나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다.



△ 엠버서더호텔에서 열린 과학사료 세미나

○덕수가축 이세영전무 출국 : 지난 10월 1일 출국하여 미국 아이오와주 데모인 재향군인 기념관에서 10월3,4,5일 열린 IPTS(국제 양돈쇼)에 참관한후, 미국 동물약품계를 둘러보고 18일 귀국예정이다.

이번 IPTS에서는 양돈산업 기술 장비 용역 전시회와 미국 선진지 양돈설비를 관광하고, 돼지 사양기술 세미나에도 참석하게 된다.

○해표사료(대표 신명수) : 업무활성화와 고객서비스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사내 인사 이동과 신규사원을 보강하여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했다.

### 〈인사이동〉

- 안부웅과장(영업부 → 사료사업부 흥성출장소장)
- 김창구과장( " → " 판매관리과장)

- 이진완대리( " → " 판매관리과)

### 〈신규직원〉

- 사료사업부 지역과장 진옥모 (전 은성사료)
- " " 반종선 (전 우성사료)
- " 기술과장 윤찬효 (전 동방농산)
- " 지역과장 이종빈 (전 동방농산)
- " " 이영걸 (전 두산사료)
- 동방사료 구매부 조호연 (서울농대 축산과)
- " 생산부 김창수 (전국대 " )
- 사료사업부 지역판매과 유영희 (전국대 " )

○한국밍크조합(조합장 이규복) : 21세기를 향하는 인류문화의 발전속에 의, 식, 주 모두에 있어서 양보다는 질을 선택하는 현 시점에 국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모피(밍크, 여우)의류 제조 및 가공산업에 참여한다는 계획 아래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 모피동물(여우, 밍크)사육 확대와 외화 획득을 올리고, 조합의 활성화와 조합원의 업무편의를 위해서 지난 9월14일 사무실을 이전.

여기에 〈주〉왕농의 참여로 우리나라 모피동물 사육에 커다란 계기를 마련했다.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66-1  
(우성빌딩 301호)

전 화 : 212-0103, 4952, 8558.

○김인식씨, 제일축산 상무로 : 지난 9월 1일자로 서울미원(주)에서 제일축산 상무로 전근.



(김인식 상무)

○제일축산 인수 : 김병기씨(전 미원그룹 사장)가 최근 제일축산과 제일농산을 인수했다.

○ **<주>진양사료 (대표 강성배)** : 사세확장과 대구지역 양축가의 보다 편리한 아프터서비스제공과 기술지원을 위해 지난 9월20일 대구사무소를 개설하고 직원 3명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주 소 : 대구직할시 수성구 범어 3동 557-20  
 전 화 : 73-4115  
 (본사 하양국전화 국번신설 2-3221~5)  
 <승진발령>  
 영업부 과장 차군식(전 대리)  
 기획부 대리 박달근(전 기사)  
 총무부 대리 윤성길(전 계장)



○ **<주>농수축산신보 (대표 한남석)** : 사세확장으로 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난 9월18일자로 사무실을 이전하였다.

주 소 :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86의5  
 전 화 : (대) 323-0091~5  
 (직) 323-0094, 322-2794~5

○ **낙농 및 식음료 박람회** : 제6회 낙농 및 식음료 세계 박람회가 서독의 독일농업협회 주최로 11월 6일부터 10일까지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다.

2년마다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식음료제품, 제조기계, 제조기법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 **선진사료 (대표 이원복)** : 영업부에 김성호씨(전국대 축산과졸)를 특채.

○ **한국초지학회 (회장 윤익석)** : 9월21일자로 사무실을 축산시험장 내 초지조성과로 이전. (전화 <0331> 32-5116)

○ **유통정보총람 발간** : 한국농축수산물유통연구원(원장 류달영)은 80년부터 83년까지의 각종 유통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농축수산물유통정보총람」을 발간했다.

4×6배판 900페이지로 2만5천원.

○ **가축위생연구소 이영옥박사 출국** : 86년 및 88년 올림픽에 대비한 마필 검역으로 지난 9월15일 영국으로 출국, 축산관련 업계 등을 둘러보고 11월초순에 귀국예정이다.



(이영옥 박사)

○ **계란포장기 도입** : 종합오퍼상인 한양통상(대표 손두형)은 최근 골판지를 사용, 계란포장지로 이용할 수 있는 포장 기계를 도입했다.

이 계란포장기는 종전의 셀로판지나 스티로폼 포장지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과 운송에 편리하며, 공기유통이 원활하여 계란의 품질 보존력이 높고 포장지 자체가 완충작용을 해서 계란파손율이 적은 장점이 있다.

그런데 동사가 도입, 시판중인 이 포장기중 포장지 제조기는 시간당 36,000장의 생산능력이 있으며, 계란포장기는 시간당 10,000개의 포장능력을 갖추고 있다.

○ **제일제당 <주> (대표 이종규)** : 동사는 최근 신축된 동방생명빌딩으로 사무실 일부를 이전했으며, 이에 따라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

이전장소 :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150  
 (동방생명빌딩 17~18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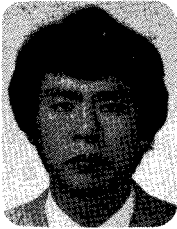
전화번호 :

안 내 : 7518-532·3

곡물사업부 : 7518-513~525

## ● 축산업계소식

○다나화학 (대표 임정수) : 영업부의 활성화  
화를 위해서 지난 10월 1 일부로 김택환 (상지대  
무역과졸) 씨를 특채하였다.



(김택환 씨)

### ◎ 신 제 품 ◎

#### ◇ 홀몬제 콘세랄 (주) 동방

그동안 품질 제일주의를 표방해온 (주) 동방  
(대표 이각모)은 금년 8월15일을 기해 그간 추  
진해오던 주사제 시설에 약 7천만원을 투입하  
여 완전자동 무균 포장기를 비롯한 G.M.P기  
준의 무균 주사제실을 완료하고, 첨단제약 산  
업분야인 홀몬제 국내생산에 성공했다.

이번에 개발된 콘세랄(LH-RH)은 일본 다께  
다 회사의 세계 특허품으로 세계에서 일본 다음  
으로 개발된 제품인바, 다께다의 품질 관리부  
장 가와무라박사와 2인의 기술진 지도하에 국  
내 생산을 성공리에 마쳤으며, 낙농·비육우에  
서 문제가 되고 있는 번식장애를 치료하는데 특  
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효능으로는 난소 낭종, 난소정지, 배란장애,  
배란지연을 나타내는 번식우의 치료에 사용된다.  
또 이 제제는 그동안 재래식으로 사용하던  
H.C.G(P.U.G) 등과 같이 항체형성으로 인한  
치료효과가 저하되는 결점이 없으며, 수입대체  
효과가 커 축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  
로 보인다.

한편 동사에서 수입판매되고 있는 루델라이  
스(미국업존) 역시 그 성과가 날로 더해 낙농·  
비육업자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안전, 건강하게!

### 제 품 안 내

- 일반 온도 조절기
- 컴퓨터식 온도 조절기
- (중앙 제어 장치)
- (온도, 습도, 환기, 경보)



**경일정밀**

TEL. 83-6675

인천직할시남구주안3동735번지3통1번10호